선 수행의 길,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불교중흥실천협, 1000일 참선대법회 개최

대선사 법석 통한 수행 正路 제시
첫 법회, 3월 19일 부산코모도호텔
참불선원 각산 스님 첫 법사 이어
무여 · 의정 스님도 수행법 지도
대학생 포교 위해 500명 초청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3월 19일부터 '1000일 참선대법회'를 봉행한다. 첫 법회는 참불선원 각산 스님(사진 맨 왼쪽), 5월 27일은 축서사 무여 스님(중앙), 9월 17일에는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맨 오른쪽) 순으로 열린다.

치열한 구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온 선 수행. 이러한 선 수행이 일반인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참된 힐링의 길을 제시하는 법회가 열린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의장 안국)는 1000일 참선대법회 '불교미래 100년을 위한 사자굴에 들어가다'를 개최한다. 첫 법석은 3월 19일 오후 2시 부산코모도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1000일 참선 대법회'는 불교중흥실천협의회에서 펼치는 주요 사업 가운데 '재가 안거제도 포교활성화'와 '청소년 및 대학생불교 포교활성화'를 위해 여는 법석이다. 일반 재가자들이 대선사들의 법문을 통해 수행법을 지도 받고,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포교를 위해 대학생 500명을 특별 초대한다. 여러 방편으로 불교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핵심 내용을 대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이사 안국 스님은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행복에서 더 멀어지고 불안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행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안겨줄 뿐 아니라 우리 불교가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참선 대법회는 신행과 포교라는 불교 중요 과제를 해결하는 참다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000일 참선대법회' 첫 공식 법석의 법사는 참불선원 각산 스님이 나선다. 각산 스님은 서울과 부산에서 '참다운 불교와 나의 참된 불성을 깨닫자'는 뜻의 '참불'을 강조하고 대중에게 선 수행 실참을 지도 중이다. 세계적 불교수행자로 알려져 있는 아잔 브람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동시에 지도하며 쉬운 언어로 수행법을 전달하고 있다.

2차는 5월 27일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3차는 9월 17일 경기도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이다. 무여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6년 이후로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등 제방 선원에서 20여 년 동안 안거했다. 이후 칠불사 · 망원사 선원장과 조계종 초대 기초 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로 선의 가풍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선사다.

의정 스님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이사장이며 1973년 출가 후 선 수행으로 일평생을 걸어 온 대선사로, 간화선을 대중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선원생활의 규범이 되는 〈선원청규〉 편찬 위원장을 맡아 승가 공동체의 수행 생활을 강조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3차 법회에 이어 한국 뿐 아니라 태국 · 대만 · 호주 등 수행법을 안내할 법사 스님들을 모실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법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특별 후원금은 불교실천중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선원수좌회, 선원수좌문화복지회에 회향한다. (051)504-3389

하성미 기자

안동시, 종교평화 공간 '종교타운' 준공

화성동 및 목성동 일원 5개 종교 상징물 등 갖춰

유교문화의 본향 안동에 종교평화의 공간 '종교타운'이 들어섰다.

경북 안동시는 화성동 및 목성동 일대에 안동종교타운을 조성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종교타운은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유교 · 성덕도 등 다양한 종교의 상징물을 갖추고, 음악회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함께 구성됐다. 특히 목성공원은 종 모형과 통석 벤치를 조성해 휴게공간으로 꾸며졌다. 부지매입비 포함 총 74억을 투입, 51필지 5,901㎡ 규모로 조성됐다.

이는 안동지역의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교타운 주변엔 조계종 대원사를 비롯해 안동지역 최초 교회인 안동교회와 김수환 추기경이 첫 사목생활을 시작한 천주교 안동교구 목성동주교좌성당이 있다. 이밖에도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과 신흥민족종교인 성덕도가 있다.



경북 안동시가 화성동 및 목성동 일대에 조성한 안동종교타운 전경.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종교타운을 통해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꾀할 뿐 아니라, 창조적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종교타운을 시민휴식공간과 종교 관련 테마관광지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준공식은 2월 22일 오후 2시 화성공원서 열렸다. 박아름 기자

천진불 화음으로 혜인 스님 추모

제주 약천사, 제7회 리틀붇다 어린이 합창단 정기 공연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 리틀붇다 어린이 합창단이 지난해 6월 입적한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을 추모하며 스님의 일대기를 단막극과 합창으로 선보였다.

약천사는 2월 19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스토리가 있는 합창-혼저 돌아홉서예, 신심과 원력의 삶 혜인 큰 스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리틀붇다 어린이 합창단 제7회 정기 공연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합창 '혼저 돌아홉서예'는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이 은사인 혜인 스님의 삶을 재조명, 약천사를 창건하고 불교 정법을 널리 알린 혜인 스님의 원력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했다. 어린이 합창단이 스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엮어 공연에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창단 공연은 혜인 스님의 발심 · 신심 · 원력 · 회향 등 스님의 일대기를 4가지로 나눠 음악을 통해 표현했다.



혜인 스님이 발심 출가하기까지 지낸 제주도 화순 해변의 삶을 담아 '섬집 물애기', '애기 왕자 오셨네'를 노래했다. 또한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의 당부와 격려 속에 108만배 절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고 포교한 신심을 담았으며, 약천사 창건 및 마지막 입적 당시 정진의 끈을 놓지 않은 모습까지 완벽하게 재조명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하성미 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7주기 추모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법정 스님의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다시 되새겼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2월 22일 부산 사무국에서 '법정 스님 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법정 스님이 유훈으로 일러 주신 청빈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추모법회도 간소하게 봉행했다.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신 그 뜻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모법회에는 前 범어사 주지 흥교 스님, 범어사 금강암 회주 정만 스님, 원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택시불자회, 달라이라마 방한추진 '동참'

2월 23일 전국 릴레이 법회서 '방한추진회 추진단체' 임명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2월 23일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 추진단체로 임명돼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상임대표 금강, 이하 방한추진회)가 한국 사회에 자비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방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릴레이 지역법회를 이어간다.

2017년 첫 전국 릴레이 지역법회가 2월 23일 대광명사에서 부산개인택시불자회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 300여명은 두 손 모아 달라이라마 방한을 발원하고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아울러 방한추진회 추진단체로 임명돼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앞으로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방한추진회 활동에 더욱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한추진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달라이라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 존경받는 인물 중에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분이시다. 종교와 국가를 떠나 존자님이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모두가 위로 받고 희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존자님을 뵙고 난 뒤 참된 자비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진심으로 귀의하고 자비 그 자체인 모습을 한국 사람들도 뵙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법했다.

전병원 부산개인택시불자회장은 "그동안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모임이나 행사 곳곳에서 교통정리 등 봉사를 펼치며 회원들이 협조하고 있었다"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택시 안에 서명지를 가지고 다니며 달라이라마 방한의 목적성을 설명하고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추진회는 앞으로 소규모 법회 뿐 아니라 큰 법회와 이벤트 등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방한 운동을 지속 전개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방한추진회 회원 스님들이 각 사찰과 법회에서 신행단체 및 신도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한 운동을 이어간다. 하성미 기자

장안사, 기도로 여는 설법전 불사

천년고찰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는 2월 20일 경내 대웅전에서 '설법전 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1000일 다라니 관음기도'를 입재했다.〈사진〉

이번 법회가 진행된 대웅전은 2012년 7월 30일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중요 문화재로 보존 및 보호가 필요하다.

장안사는 이번 설법전 불사를 통해 많은 불자들을 수용, 대웅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1000일 기도를 통해 신도들이 불사에 동참할 뿐 아니라 참된 기도를 배우도록 돕고, 전국 관음성지를 방문해 신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